나노 소재로 숨 쉬는 생리대… '에어퀸' 통기성 2만배 ↑

코스닥 상장사 톱텍의 자회사인 나노 소재 전문기업 레몬이 '나노 멤브레인' 소재를 적용한 생리대 '에어퀸'을 새롭게 선보였다. 레몬은 위생용품을 시작으로 향후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2024년에는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김효규 레몬 대표이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레몬의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나노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생리대 '에어퀸'을 출시하게 됐다"며 "에어퀸의 원활한 국내외 공급을 위해 향후 생산 설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노 멤브레인은 섬유 직경이 가늘어 높은 공극(air gap)을 자랑하는 신소재다. 사람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인 100~200 나노미터 굵기로, 나노섬유들을 입체적으로 쌓아 높은 표면적의 그물망 구조를 하고 있다. 매우 얇고 가벼우며 높은 통기성과 방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기성과 방수 기능을 인정 받은 레몬의 나노 멤브레인은 아웃도어 전문 기업인 노스페이스 미국 본사에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다.

에어퀸은 이 같은 소재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에어퀸'은 PE 필름을 적용하는 일반 생리대와 다르다. 기존 제품 대비 2만배 이상의 통기성과 6배 이상의 투습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에어퀸' 기자간담회에서 김효규 레몬 대표이사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레몬

레몬 '에어퀸' 생리대 출시

방수·통기성 우수한 '나노' 기술
노스페이스 美 본사에 독점 공급
커버층 100% 유기농 순면 적용
흡수·착용감·커버 편의성 높여
8일부터 온·오프서 순차적 판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레몬 숨 쉬는 생리대 '에어퀸'출시 간담회에 모델들이 라이너, 소형, 중형 등 5종으로 구성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레몬이 강조하는 에어퀸의 또 다른 특징은 착용감과 편의성이다. 김 대표이사는 "커버층에 100% 유기농 순면을 적용해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슬라이드 박스, 소포장으로 휴대성을 높였고, 재사용시에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품은 ▲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등 총 5종으로 출시됐다. 초슬림 디자인, 사이즈에 따라 5~7개들이 소포장 팩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타사 제품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개당 권장 소비자 가격은 라이너 300원, 소형 660원 중형 720원, 대형 780원, 오버나이트 1440원이다.

김 대표이사는 "경쟁사의 프리미엄 제품군과 유사한 수준, 혹은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다"며 "프리미엄 시장으로 타겟팅을 한 이유는 기존 PE 필름을 적용한 제품들과 비교해 기능상 차이가 크고,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유기농 순면 커버, 높은 흡수력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어퀸'은 전날 오픈한 자사몰을 시작으로 오는 8일부터 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한다. 해외 진출도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해외 주요 5개국에도 출원을 완료했다.

김 대표이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영국 등에서 18개 대리점과 계약을 마쳤다. 또한 계약을 추진 중인 15개를 포함해 해외 진출 영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몬은 생리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레몬은 에어퀸 생리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 한 해동안 약 330억 원을 투자해 연 8억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 6개를 구축한다.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2024년까지 매년 6개씩 제조 라인을 늘려 총 36개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이사는 "'에어퀸'은 레몬의 대표 소비재 브랜드로 향후 황사 마스크, 미용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면서 "단순히 원단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이 느리게 진행 된다. 속도를 내기 위해 B2C까지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GS리테일, 협력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GS리테일과 협력 업체가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2일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GS수퍼마켓, 장보기 쇼핑몰 GS프레시, H&B스토어 랄라블라와 21개 협력 업체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지난해 8월부터 보훈처와 손잡고 다양한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힘입어 협력 업체들도 의미 있는 사업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나선 것이다. 참여 업체는 ▲빙그레, ▲엘지생활건강, ▲한국야쿠르트, ▲유한킴벌리, ▲민속한우 등 총 21개다.

협력 업체가 지정한 68개의 상품을 GS25, GS수퍼마켓, GS프레시, 랄라블라에서 고객이 구입하면 수익금의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된다. 상품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국가 보훈처를 통해 전달 되며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일에 쓰인다. /김민서 기자

GS25의 4월 도시락 역사알리기 스티커와 역사알리기 브로마이드. /GS리테일

CJ CGV, 미얀마서 영화 인재 키운다

영화창작 교육 '토토의 작업실'
현지 감독 등과 함께 영화 제작

CJ CGV가 영화인을 꿈꾸는 미얀마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CJ CGV는 미얀마 양곤에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인 '토토의 작업실'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토의 작업실'은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영화창작교육 프로그램이다.

CJ CGV가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해 2011년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미얀마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영화인을 꿈꾸는 현지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미얀마 양곤서 열린 '토토의 작업실' 개막식. /CJ CGV

4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12~16세의 미얀마 청소년 3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5개 조로 나뉘어 영화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마케팅, 상영까지 영화 제작 전 과정에 대해 배우고 몸소 체험하며 자신들의 영화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지 영화 감독, 작가, 배우, 프로듀서 등 7명이 멘토로 직접 아이들 교육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르까프 도심 속 러너를 위한 '울트라 라이드'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는 도심 속 러닝을 즐기는 시티 러너(City Runner)를 위한 '울트라 라이드(ULTRA RIDE)'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울트라 라이드는 안정된 착화감, 뛰어난 쿠셔닝으로 어떤 지형에서든 가볍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러닝화다. 신발 앞면과 옆면 무재봉 부위에 언더레이(Under laying)를 보강하는 마이크로 스마트 퓨즈 기술을 적용해 착화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또한 뒷꿈치를 받쳐주는 보강 구조를 적용해 편안한 활동을 지원한다.

/김민서 기자

/르까프

'최화정쇼', 라이프스타일 제안으로 흥행

CJ ENM 오쇼핑부문

론칭 3주년을 맞은 CJ ENM 오쇼핑 부문의 대표 프로그램 '최화정쇼'가 업계 대표 라이프스타일 제안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굳혔다.

2016년 4월 6일 첫 방송한 최화정쇼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방송인 최화정씨가 강연희, 이민웅 쇼호스트와 함께 재미있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리빙, 뷰티, 식품 등 생활 속 보탬이 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안한다.

최화정쇼 방송의 차별점은 상품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최화정씨의 진행 방식도 인기 원동력이다. 20년 이상의 라디오 DJ 경험과 올리브 채널의 '밥블레스유' 방송에서도 입증된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스토리텔링 능력이 홈쇼핑 고객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최화정쇼의 3년 간 누적주문금액은 약 2800억원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G마켓·옥션

미세먼지 상품 단독 할인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4월 한 달간 유한킴벌리와 함께 사업자고객을 위한 환절기-미세먼지 상품을 단독 할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독 할인 프로모션은 중소사업자고객을 위한 사업자 전문몰 'G마켓 비즈온'과 '옥션 비즈플러스'에서 진행된다. G마켓에서는 4월 한 달간 ▲유한킴벌리의 황사마스크 KF80 15매와 KF94 5매, 손소독제로 단독 구성된 상품을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